

베일벗는 '외환은행 매각'

감사원 감사 결과

부실 과다 산정, BIS 비율 조작

자산가치 저평가·금융감독 당국은 방조 이강원 前행장·변양호씨 핵심인물 지목

감사원의 19일 외환은행 감사결과 그 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베일을 벗기게 됐다.

감사원은 당시 매각 관계자들이 '진실 게임'에 대한 3개월여간의 규정작업을 거쳐 매각 작업이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사실상 '조작'과 자산가치 저평가, 금융감독국의 허술한 예외승인 등 치명적 하자 투성이었다는 점을 밝혀냈다.

특히 감사원은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변양호 보고관 대표(당시 재정부 금융국장)를 외환은행 '혈값매각'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 매각과정에서의 이들의 역할을 파헤치는데 상당 부분 진전을 얻었다.

◇은밀히 진행된 비밀매각협상=이 전 행장 등 외환은행 경영진들이 당시 자본 확충에 급급한 나머지 정상적 절차를 뛰어넘어 무리하게 매각작업을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혈값매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 감사결과 외환은행 매각작업은 대주주와 이사회 등을 배제한 채 극비리에 추진됐다. 은행내에서도 이 전 행장 외에 이달용 전 부행장과 매각실무팀장이었던 전용준 전 부장과 실무팀원 등 5명 정도만이 론스타와의 매각협상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사회에는 실질적 협상이 끝난 7월에서야 보고됐다.

◇사실로 드러난 '혈값매각' 의혹=감사원은 외환은행측의 BIS 과다 부실 산

정을 사실상 '조작'으로 결론지었다. 감사원의 BIS 재산정결과 부실금융기관 관정기준인 8%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이 전 행장 등이 부실을 최대한 반영해 자산·부채 실적결과를 제출토록 삼일회계법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을 뿐 아니라 삼일회계법인이 제출한 실적결과에 부실을 추가해 이를 기준으로 매각기준 가격을 산출하도록 매각주간사인 모건스탠리에 제시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국의 론스타 '특혜' 방조=금융감독 당국이 은행법 조항을 무리하게

확대 적용, 인수자격이 없는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사실상 방조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은행법상 15조에 따르면 사모펀드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론스타가 이 법규정을 벗어나는 데는 변양호 당시 재정부 금융정책국장 이 중심에 있었다고 감사원은 적시했다.

금융감독국과 금융위도 승인요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외환은행이 보고한 BIS 비율(6.16%)을 성급히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핵심인물'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윗선' 개입, 론스타 불법 여부 규명 못해=재경부와 금감위, 금감원 등 금융감독국이 약속이나 한 듯 '속전속결'로 이

뤄진 외환은행 매각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데 대해 그동안 '제3의 손'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윗선 개입설'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황상 나름대로 판단했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감사결과로 내놓을 수 없는 부분도 있다"면서 "검찰수사에 협조하겠다"며 검찰로 공을 넘겼다.

감사원은 일각에서 제기됐던 청와대 연루설에 대해서도 "당시 청와대의 스탠스는 사외감등 과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라는 것으로써 상황을 보고받은 권오규 당시 청와대 정책수석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며 "일상적 모니터링 차원"으로 결론내렸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19일 오후 감사원에서 '외환은행 매각' 관련, 감사원의 중간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외환은행 노조원들이 바깥에서 공정한 감사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수사 본격화 '이현재 사단' 출소환 예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혈값매입 의혹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로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외환은행 매각 당시 금융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현재 사단'이 검찰의 조준권에 들어오는 형국이다.

이 전 부총리와 화연·지연 등으로 얽힌 인물들이 중요 경제정책 결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포진돼 붙여진 '이현재 사단'이 외환은행 혈값매각에도 어떤 형태로든 관여했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외환은행 매각주역 '3인방'인 김석동(재경부 차관보) 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과 변양호(보고관) 공동대표 전 재정부 금융정책국장, 이강원(한국투자공사 사장) 전 외환은행장이 우선 이현재 사단 인물로 꼽힌다.

사단 인맥 중 상당수는 이 전 부총리와 종교도 동문이며 김석동 차관보와 변양호 전 국장은 이 전 부총리의 고교 후배이다. 보고관 대표인 변 전 국장은 이 전 부총리가 2003년 설립을 추진한 '이

현재 펀드'의 계승자 역할을 했다는 소문도 있다.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외환은행 불법매각 건을 변양호 전 국장과 김석동 차관보의 작품이라며 고교 동문 등으로 엮인 '이현재 사단'을 겨냥해 포문을 열기도 했다. 이강원 전 은행장은 이 전 부총리와 광주서중 동문으로, 이 전 부총리가 10억원의 대출을 받던 2003년 초 외환은행장을 지냈다.

이 전 행장은 외환은행의 연말 BIS(국

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6.16%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부실 전망'의 배경을 알고 있을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환은행 혈값 매각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면 이 전 부총리를 정점으로 한 금융계 핵심 인사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의 요청으로 이강원 전 행장, 이달용 전 부행장 등에 대한 출금조치를 일찌감치 취하고 변 전 국장의 신병을 확보한 데 이어 이 전 부총리의 출국도 금지하는 등 '이현재 사단'을 겨냥한 내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해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美 '北 미사일' 대응 나섰나 관서 10여년만에 최대규모 군사훈련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연료 주입을 끝낸 것으로 보여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높여주고 있다고 미국 관리들이 18일 밝혔다.

하지만 당초 'D-데이'로 예상됐던 18일을 넘기면서 북한이 '미국 흔들기'를 목적으로 할 경우 이번 미사일 위기가 다소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계획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제재 등 엄중 대응할 것이라며 거듭 경고하고 나섰고, 호주와 뉴질랜드 정부도 북한에 미사일 발사 자체를 요청하는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이같은 미사일 위기속에서 미군은 19일부터 태평양 광도 부근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료 주입 끝낸 듯'=로이터 통신은 18일 워싱턴을 요구한 북수의 미 관리들 말을 인용,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연료 주입을 끝낸 것으로 보여 북한이 조만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연료 주입 발사 임박"

이들 관리는 또 북한이 미사일 발사 취소를 결정할 가능성도 남아 있지만 일단 미사일에 연료를 주입하면 다시 빼내기가 복잡하고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유예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AP 통신도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북 경고, 자제 촉구=미국은 적절한 대응을 경고하고 있고, 일본은 유엔에 대한 '엄중한 항의'를 추진하고 있다.

미 관리들은 지난 16일 유엔 주재 북한 외교관들을 통해 전달한 메시지에서 북한 정부에 미사일 시험발사 움직임에 대해 경고 했으나, 아직까지 북한의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그러나 "군사력 역지력"을 강화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일 대포동 2호 발사 동향

을 둘러싼 사태가 다소 길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미국과의 협력 속에 엄중 경계감시 체제를 지속해가기로 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D-데이'로 예상됐던 18일을 넘기자 "미국 흔들기가 목적이라면 발사까지 좀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일본 정부 소식통의 판단을 전했다.

日 "경제제재 등 엄중 대응"

◇미군 관에서 매머드급 군사훈련=미군은 19일부터 닷새간 태평양의 미국령 괌 인근에서 미 항공 3척이 참가하는 10여년만에 최대 규모의 '용감한 방패'(Valiant Shield) 2006' 군사훈련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미군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 위기가 미국령 괌에서 실시되는 미군의 대형 군사훈련, 이른바 '용감한 방패'(Valiant Shield)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19~23일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로널드 레이건호, 에이브러햄 링컨호, 키터 호크호 등 3개 함대와 함정 30척, 공군기 280대, 병력 2만2천여명이 동원되는 매머드급 훈련이다.

"北 미사일, 괌 겨냥할 수도"

괌은 최근 미군 재배치 구상과 맞물려 군사적으로 핵심요충지로 부상하고 있는 곳이다. 괌은 태평양에서 미 신속대응군의 허브로 도약하고 있고, 최신형 폭격기들이 배치됐으며, 현재 3척의 핵추진 잠수함이 작전중이나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괌 주민들과 지도자들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혹시 괌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미 국방부도 "북한의 미사일이 1시간내에 괌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괌을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있음을 관측을 유발했다.

괌 대학의 제라미 레니오(22)는 "괌에 미전함들이 집결해 있고 중요 군사기지로 부상했다"면서 "이번 군사훈련이 북한에게 괌을 공격할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외신종합

우리당 오늘 '北 미사일' 비상대책회의

열린우리당은 20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어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한 정부의 대책을 청취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19일 비대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가 사실상 경우 한반도 정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우상호 대변인이 전했다.

임시 비대위회의에는 통일, 외교, 국방부 등 외교안보 관련 부처의 장관이나 차관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 대변인은 "북한이 잘못된 판단에 근거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적절하게 국제사회와 남측의 의견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기미, 검은반점치료에

도미나크림은 치료를 위한 의약품입니다.

도미나 크림은 기미, 주근깨, 노년성 검은반점등, 피부에 과도하게 침착된 멜라닌색소를 효과적으로 억제, 개선시켜 주는 치료를 위한 의약품입니다.

도미나크림은 초파해른 히드로퀴논(주성분)에 17종의 크림기제를 복합적으로 배합시킨 의약품으로써, 자외선에 의해 피부 부위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생성을 억제하여 기미, 주근깨, 노년성 검은반점의 원인인 색소침착 현상을 깔끔하게 개선, 치료하여 줍니다.

치료를 위한 의약품

도미나

크림

● 하루 2번 (아침과 저녁) 바르세요
● 피부에서 구멍이 나지 않습니다.

탈모증 치료제 모바린

일본 의약품으로 약국에서 직접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 02)3474-7761 FAX 02)3472-5501 ● 대전 042)253-3066 ● 부산 051)831-0931 ● 마산 055)248-7762 ● 광주 082)524-7553 ● 대구 053)764-2751

경보제공 : www.taiguk.co.kr 080-300-8292